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주한미군 주둔은 특혜가 아니다

정 및 이행약정에 있다. 5조에는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시설·구역(토지)·통행권을 부담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국이 부담해야 할 항목은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등이 핵심이다. 인건비는 주한미군사령부가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용이다. 100% 현금 지원이다. 군사건설비는 막사·훈련장·환경시설 등 비군사시설에 사용되는 비용이다. 88%의 현물과 12%의 현금 지원이다. 한국이 계약권을 가진다. 군수지원비는 탄약저장·정비·수송·장비 물자·시설 유지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다. 100% 현물이다. 미국이 계약권을 보유하고 한국은 승인권을 가진다. 방위비 분담금 지원은 1991년부터 시작됐다. 이전에는 미국이 대부분 부담했다. 1991년 이후부터는 한국의 경제력 신장으로 지원 규모가 점점 증가되어 왔다. 1991년 1073억 원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1조 389억 원을 지원했다. 29년 동안 지원 규모가 10배 증가했다. 지원 비용 결정은 전년도 총액에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고 인상을 상한선은 4%를 적용했다. 2020년도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50억 달러이다. 미국이 스스로

책정한 2020년도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44억 6000만 달러이다. 44억 6000만 달러 속에는 주한미군 인건비 21억 달러, 운영유지비 22억 달러, 가족 숙소 관련 비용 1억 4천만 달러, 기타 군사건설비 등이 있다. 2020년도 분담금 요구액이 주둔경비 책정액을 능가한다. 주한미군에 대한 모든 비용을 한국이 책임지라는 것이다.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는 주한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경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미국의 요구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한미 간 특별협정을 스스로 위배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인건비까지 한국이 부담한다면 주한미군이 한국의 용병이 되어야 한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인도-태평양 전략 등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 수행 비용과 연계되어 있다. 한미연합연습에 참가하는 해외 미군, 항모전단 등 전략자산의 전개,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 작전 등의 비용 요구에 잘 나타난다. 주한미군 순환 배치 비용, 주한미군 작전 준비태세 비용 등의 작전 지원 신선향목 요구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 실행 비용 요구는 한국 방위에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를 넘어선다. 한국을 패권 전략의 전초기지

로 삼겠다는 것은 동맹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은 충분한 수준의 안보 부담을 해 왔다. 미국의 주요 동맹이나 우방국을 가운데 국내총생산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의 국방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카투사 지원·세금 감면·공공요금 감면 등 상당한 수준의 직간접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평택·오산 등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한 사업비 108억 달러도 충당하였다. 주한미군은 세계 최대의 규모와 최적의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국군은 월남전·아라크전·아프간전 등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사 활동에 모두 동참해 왔고 최근까지 12개국에서 파병 활동을 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한국의 재정 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 상황,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공평성에 토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어야 한다. 무임승차론이나 주한미군 철수론 같은 낡은 주장은 미국 스스로 논리의 한계성을 보여 준다. 오늘날 주한미군 주둔은 더 이상 한국에 대한 특혜가 아님을 미국만 모르고 있다는 점에 서 안타까울 뿐이다.

종교칼럼

쇄신이 필요하다



황성호
영암 신복성당 주임신부

교회 역사 안에서 교회의 구성원들이 저지른 여러 가지 과오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청했다. 당시 교황은 구제적으로 교회 분열, 중세 종교 재판, 십자가 원정, 유대인과 타 종교인들에 대한 박해, 여성에 대한 억압과 원주민들에 대한 폭력,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 대한 묵인 등에 대해 용서를 청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교회가 2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 잘못들을 인정하고 세상을 향해 용서를 청한 것이었다. 이처럼 교황의 세상을 향한 '참회'의 모습은 당시 획기적이고 겸허한 자세로 평가되었다.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톨릭교회가 시대에 역행하지 않고 여타의 종교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전 인류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필요한 '쇄신'의 작업이었다. 지금 우리의 시대가 '쇄신'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과거의 방식이나 태도들은 오래 묵은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정치·사회·경제·문화·종교 등에서 '쇄신'의 필요성을 느낀다. 우리 정치의 '쇄신'이

필요하다. 정치는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는 곧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우리의 정치인들이 행하고 있는가? 우리 사회의 '쇄신'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가 질서를 지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가 정의롭고 공평한가? 우리 경제의 쇄신이 필요하다. 전박한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좀 더 성숙한 생산 활동과 소비를 인간답게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는 상상하고 있는가? 우리 문화의 쇄신이 필요하다. 문화의 쇄신은 이제 더 이상 단일 민족·한 핏줄이라는 배타적인 시각을 벗어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올바르며, 다문화가정을 우리 가족 공동체로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종교의 쇄신이 필요하다. 우리 종교의 쇄신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의미를 가르치고 함께 살아가려는 사회 통합의 기능, 곧 결속의 역할 수행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의 종교들이 소통과 통합이 아닌, 분열과 위

화감을 조성하고 있지 않는지? 참된 진리를 찾고 배우려는 이들에게 우리 종교들이 스스로 장애물을 쌓아 막고 있지는 않는지? 2000년 전 예수는 당시 시대의 정치·사회·경제·문화·종교 등의 모든 면에서로서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가 질서를 지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가 정의롭고 공평한가? 그것은 바로 '사람'을 배제하고 정의하거나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는 기득권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고, 사회는 무질서를 조장했고, 경제는 점점 가난한 삶을 만들어 냈다. 문화는 타락했고, 급기야 종교까지도 세상의 물질주의에 휩싸여 종교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는 당시 '쇄신'을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인간을 짓밟는 정치·사회·경제·문화·종교는 그 존재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의 말씀이 떠오른다.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루카 6, 37-38)

기고

선생님은 항상 네 편이란다



문경희
문흥중앙초교 교사

상황에서 서연이 아버님이 최근 실직까지 당해 집안에 빈 소수병이 늘어난 것이다. 급기야 아이와 약속하기를 술을 계속 마시면 웃을 많이 사주기로 했다. 서연이가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버틴 이유가 어린 마음에 웃을 갖고 싶어서가 아니었던 것이다. "아버님 혹시 약속 하셨나요?" "네..." "서연이 전화 바꿔 주세요." 전화 받기 싫다는 전화기 너머 아이 목소리에 그냥 스피커 폰으로 들려 달라고 했다. "서연아! 선생님 네 마음 알아! 지금 너무 속상해서 그런 거지? 선생님이 네 이야기 들어줄게 지금 빨리 학교로 오렴! 그럼 선생님이 네 마음 들어줄 수 있어." "친구들과 함께 가방도 만들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표정도 밝아지고 활발해지는 모습이었다. 책도 친구들과 함께 읽으며 환하게 웃었다. 특히 지역 아동센터 선생님고 상담을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학교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또 다른 아이의 모습을 통해 학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도움, 상담 활동까지 공유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 서연이의

는 질문에 서연이는 말했다. "아빠가 죽을까 봐 걱정돼요. 저 혼자 남을까 봐 무서워요." "선생님은 무조건 네 편이야. 아빠가 뭐라고 하셔도 선생님은 무조건 네 편이니 혹시 힘든 일 있으면 꼭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야 된다? 아빠도 선생님 말은 잘 들어 주실 거야. 그러니 걱정 하지 마!" 서연이는 유난히 책을 좋아했다. 그런 데 유독 혼자 책 읽는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었다. 서연이는 책을 읽는 행위 속에 자기만의 고민을 투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광주 희망교실' 활동을 통해 그런 서연이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친구들과 함께 가방도 만들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표정도 밝아지고 활발해지는 모습이었다. 책도 친구들과 함께 읽으며 환하게 웃었다. 특히 지역 아동센터 선생님고 상담을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학교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또 다른 아이의 모습을 통해 학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도움, 상담 활동까지 공유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 서연이의

엄마 없는 자리가 조금은 채워지기를 내심 바랐다. 아이에게 마음의 상처가 생기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다 해도 치유의 방법은 주변에서 함께 고민해 찾을 수 있다. 찬바람이 일찍 불어와도 서연이는 얇은 옷을 입고 등교를 한다. 몇 뿌리져 재잘거리고 엄마와 웃을 고르러 갈 나이이지만 서연이에게는 낯선 일이다. 그래서 올해 추석을 앞두고 서연이에게 어울릴 만한 예쁜 가을 원피스와 조끼를 골랐다. 아무 말 없이 수줍게 받아 들더니 어는 아침 고운 가을빛의 조끼를 입고 등교한 아이의 모습에 미소가 지어졌다. 그리고 아버님에게 반가운 소식을 받았다. "선생님! 예쁜 옷도 사주시고 여러 가지로 관심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속으로 바랐다. 서연이는 아직 엄마가 그림고, 아빠와 단 둘이 지내는 것이 쉽지 않은 나이이다. 그래도 서연이가 아빠를 염려하고 생각하는 그 따뜻한 마음을 잘 간직하고 예쁘게 자랐으면 좋겠다. "서연아, 기억하렴. 선생님은 항상 네 편이야!"

社說

수돗물에 발암물질 쉬쉬하고 넘기려 했더니

최근 수돗물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나프탈렌이 검출됐으나 광주시는 이를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돗물에 이물질이 섞여 나온 사건은 지난 7·8일 남구 주월·월산동, 서구 화정·염주동 일대에서 발생했다. 당시 주민들은 '기름 냄새가 난다'며 신고했고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검사 결과 철·아연·구리 등 중금속과 함께 미량이지만 발암물질인 나프탈렌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나프탈렌은 국제암연구소가 2002년부터 발암가능 물질로 지정했고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분류할 정도로 인체에 유해하다. 하지만 광주시는 나프탈렌이 정부가 정한 먹는 물 수질 기준 60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프탈렌 검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끓이지 않는 물은 마시지 말라'고만 공지했다. 광주시는 수돗물 이물질 사고 발생 후부터 19일 비상상황 해제 시까지 총 146회에 걸쳐 검사를 실시했고 이 중 13회에 서 1당 3~4㎍(100만분의 1g)의 나프탈

렌이 검출됐다. 비록 미량이라고는 하지만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됐는데도 알리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사고 발생 후 광주시가 자청한 기자회견도 자리에서 기자들이 수돗물 이물질의 정체와 인체 유해성 여부를 물었는데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의심을 살 만하다. 한편 수돗물 이물질 사고가 주변 공사장의 진동으로 인해 노후 상수도관의 코팅막이 떨어져 나오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 근본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됐다. 20년 이상 된 광주 노후 상수도관은 전체의 20%나 되고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과 겹치는 노후 상수도관도 60km나 돼 신속한 교체가 필요하다. 광주시가 내놓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물 공급 과정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스마트관망 관리시스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광주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잇단 제조업 생산라인 해외이전 막을 수 없나

광주 지역 핵심 가전업체인 (주)위니아대우가 광주공장 일부 생산라인을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최근 밝혀 지역 경제계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위니아대우는 광주 공장 내 세탁기 생산라인 3개를 내년 3월까지 태국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광주 공장의 높은 생산 원가 때문에 세탁기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고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견디기 어렵다는 것이 이전 이유다. 사 측은 계획대로라면 현재 광주 공장 내 전체 생산직 320명 중 세탁기 생산라인에 근무하는 80여 명이 프리미엄 냉장고 생산라인으로 전환 배치된다. 광주 지역 기업의 생산라인 해외 이전과 경영 악화에 따른 공장 폐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00년 역사를 보유한 (주)경방 광주공장이 경영 악화로 지난 8월 공장 문을 닫고 광주에서 생산했던

면사를 베트남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2016년 초 세탁기 생산라인 2개 가운데 1개 라인을 폐쇄하고 베트남으로 이전했다. 제조업 경기 침체가 광주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기업 생산라인의 해외 유출은 광주 경제에 적신화나 다름없다. 그러나 생산·제조 업체가 많지 않아 척박한 광주 산업 환경에서 기업 생산라인의 해외 이전은 큰 타격이기 때문이다. 근로자 실직과 고용 불안은 야기하고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도미노현상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 광주시는 위니아대우 생산라인 해외이전에 대한 대응책에 그칠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광주 산업 생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기업 환경 악화 요인을 찾아내는 한편, 선도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매년 수능 시험장에서는 사소한 실수로 인한 시험 무효 처리자가 나오곤 한다. 고교 3년 동안의 노력을 한순간에 쏟아부어야 하는 극도의 긴장감 탓일 게다. 휴대전화 소지 등의 수능 금지 행위를 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영점 처리되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2년간 응시 자격이 박탈되기도 한다. 당하는 입장에서야 가혹해서 과거를 지르게 했다. 하지만 끝이지 않는 커닝을 없애기 위해 과거엔 부정행위자를 참수로 다스린 시대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중국이든 옛날엔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다. 한때 과거가 거의 유일한 관리 등용문이다 보니 경쟁률이 이만저만 높은 게 아니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선비들이 많았던 이유다. 이 때문에 중국 명나라 때에는 수험생들을 일주일간 외부와 차단된 시험장에서 과거를 지르게 했다. 음식과 붓 그리고 초와 요강까지 준비해 가야 했고, 책은 절대 반입 금지였다. 그럼에도 몰래 들고 간 책을 베끼는 사람, 속웃에 답안을 써 간 사람, 예상 답지를 만두 속에 숨

겨 간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청나라 때인 1657년 북경·남경 향시 때에는 부정행위자를 사형에 처했고, 1858년 북경 향시 때에는 부정행위를 공모한 대신급 시험관을 사형시킨 일도 있었다. 조선시대에도 각종 부정행위 기록이 보인다. 예상 답안지를 붓대 끝에 숨겨 가지고 온 행위는 예교에 속할 정도였다. 아예 답안지를 자기 것과 바꾸는 행위, 시험 제목을 담 너머에 알려 다른 사람이 글을 쓰게 한 뒤 가져오는 행위, 시험관과 짜고 답안지에 암호를 표시해 합격하는 사례 등 부정행위의 유형은 다양했다. 그러다 보니 영조 때에 합격자 발표 다음 날 급제자들을 궁궐로 불러들인 뒤, 자기 답안지를 외우도록 함으로써 부정행위자를 색출했다. 올해 수능에서도 광주·전남에서만 10명의 학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징계 수위는 교육평가원 징계위에서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점수와 직접 관련 있는 행위가 아닌 단순 규정 위반이라면 영점 처리는 하되, 다음 해에는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채희중 사회부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